No.21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나날이 어린이 신문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왔어요

전쟁으로 부상을 입은 군인과 부모를 잃은 아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갑자기 탱크와 비행기를 몰고 남한으로 쳐들어왔어요. 곤히 자고 있던 남한 사람들은 당황해 허둥댔죠. 그 사이 북한군은 빠른 속도로 남한 땅을 차지하며 내려왔어요. 불과 3일 만에 서울까지 쳐들어왔고, 한 달 만에 우리 땅을 거의 다 뺏을 만큼 밀고 내려왔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한국 전쟁', 다른 말로 '6.25 전쟁'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남한과 북한은 원래 한 민족이 세운 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생겨나며 둘로 갈라졌죠. 자유주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이 갖고 쓰는 거예요. 반면 공산주의는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할 일을 정해주고 그렇게 버는 돈을 모두 모아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남한은 자유주의, 북한은 공산주의로 나뉘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던 중, 북한이 쳐들어온 거예요.

남한은 처음엔 밀렸지만, 자유주의 편인 이웃 나라들이 도와줬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우리 편이 돼 함께 싸웠죠. 그 덕분에 땅을 거의 뺏길 뻔했다가 다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 서울도 되찾았어요. 반대로 공산주의 편인 소련과 중국은 북한을 도왔어요. 양쪽 모두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전쟁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전쟁은 3년이나 계속됐고, 결국 양쪽 모두 지쳐 1953년 7월 전쟁을 잠깐 쉬기로, 즉 '휴전'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차지한 땅에 넘어오지 말라며 선을 그은 것이 '휴전선'이에요.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휴전' 중이에요. 남북은 여전히 사이가 나빠서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겠죠.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다시 사이가 좋아지기를, 다시 한 나라로 통일되기를 사람들은 바라고 있어요.

* 신문기사를 소리내어 읽어 보세요.

문해력 쑥 오늘의 단어

비극 슬프고 안타까운 일

민족 인종, 문화, 말, 역사, 전통 등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

통일 여럿을 모아서 하나로 만듦. 반대말은 분단

독해력 쑥 남한과 북한은 왜 갈라지게 되었나요?

독해력 쑥 전쟁 중에 남한을 도와준 나라를 모두 고르세요.

① 미국 ② 일본 ③ 캐나다 ④ 중국 ⑤ 영국

사고력 쑥 이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이 콘텐츠는 나날이신문 구독자를 위한 콘텐츠로 무단 캡쳐 및 불법공유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